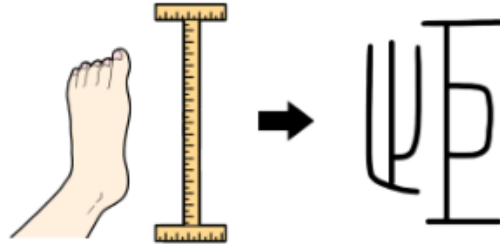


4
-
11

회의문자①



拒

막을 거:

拒자는 '막다'나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拒자는 手(손 수)자와 巨(클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巨자의 금문을 보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사람이 ^杖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목공(木工)들이 사용하던 큰 '자'를 그린 것이다. 拒자는 이렇게 큰 자를 그린 巨자에 手자를 결합한 것으로 무언가를 '(손으로)막는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止(발 지)자가 쓰인 拒(막을 거)자가 발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해서에서는 拒자가 '(손으로)막는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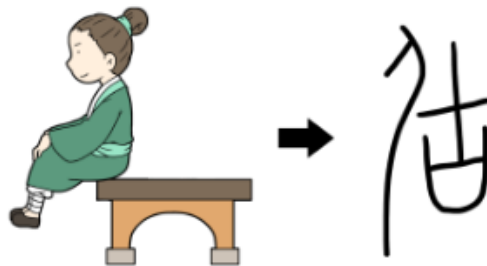
소전

拒

해서

4
-
12

회의문자①



居

살 거

居자는 '살다'나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居자는 尸(주검 시)자와 古(옛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古자는 방패와 입을 함께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居자의 금문을 보면 尸자와 古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글자의 조합이 마치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居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앉다'나 '자리를 잡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한곳에 정착한다는 의미에서 '거주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居

금문

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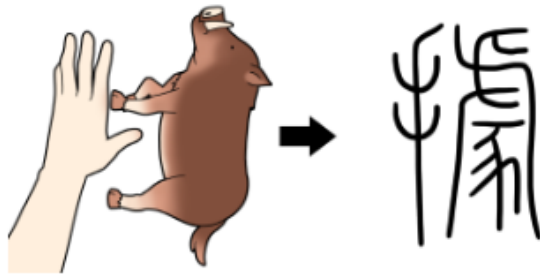
소전

居

해서

4
-
13

회의문자①



據

근거 거:

據자는 '막다', '붙잡다', '근거', '의지하다'와 같이 다양한 뜻을 가진 글자이다. 據자는 (손 수)자와 虞(원숭이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虞자는 호랑이와 돼지를 함께 그린 것으로 본래는 '멧돼지'를 뜻했었다. 據자에는 총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손(手)으로 멧돼지(虞)를 '막는다.'이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手자를 虞자와 결합해 들진해오는 멧돼지를 막거나 붙잡는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다른 하나는 手자를 '지팡이'로 해석하여 '의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虞자가 단순히 발음요소로 쓰인 것으로 해석한다. 據자에 대한 유래가 명확하지 않고 뜻도 워낙 다양하다보니 여러 해석이 나와 있다.

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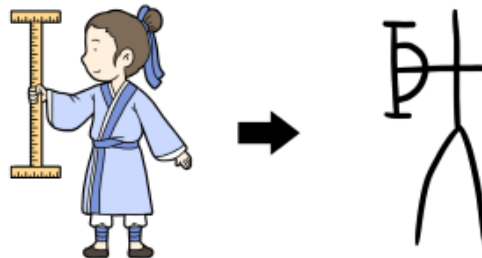
소전

據

해서

4
-
14

상형문자①



巨

클 거:

巨자는 '크다'나 '많다',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巨자는 고대에 사용하던 자를 그린 것이다. 이 자는 나무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상당했다. 巨자가 '크다'나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문에서 두 종류의 巨자가 있었다. 하나는 단순히 자만 𠂔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손에 자를 들고 있는 모습을 𠂔 그린 것이다. 巨자에 '저항하다'나 '항거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막는 모습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𠂔

금문

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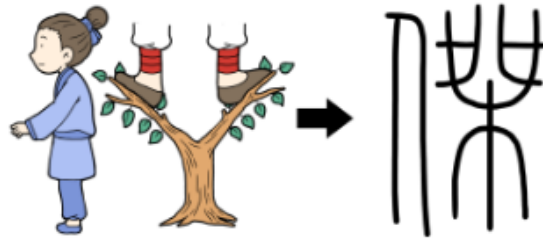
소전

巨

해서

4
-
15

회의문자①



傑

뛰어날
걸

傑자는 '뛰어나다'나 '출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傑자는 人(사람 인)자와 桀(해 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桀자는 나무 위에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에서 당당함이 느껴졌었는지 여기에 人자를 더한 傑자는 사람의 자태가 매우 위풍당당하다는 의미에서 '뛰어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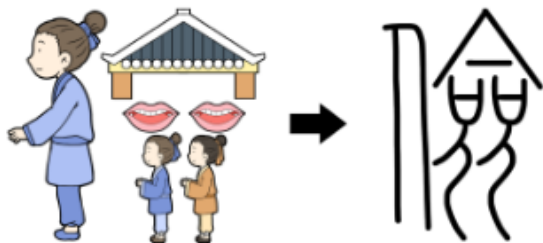
소전

傑

해서

4
-
16

회의문자①



儉

검소할
검:

儉자는 '검소하다'나 '낭비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儉자는 人(사람 인)자와 僉(다 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僉자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 웅성거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나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모두'라는 뜻을 가진 僉자에 人자를 결합한 儉자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儉

소전

儉

해서

4
-
17

회의문자①



擊

칠[打]
격

擊자는 '치다'나 '공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擊자는 𨋖(수레 끌 수)자와 手(손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𨋖자는 車(수레 차)자와 𨋖(창 수)자를 함께 그린 것이다. 여기에 手자가 더해진 擊자는 전차를 몰며 창을 휘두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擊자는 적을 공격하거나 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擊자는 약자로 擊자를 쓰기도 한다.

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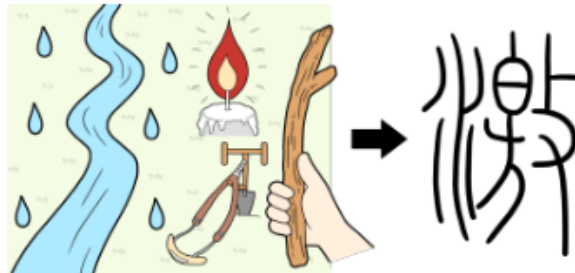
소전

擊

해서

4
-
18

회의문자①



激

격할 격

激자는 '격하다'나 '심하다', '세차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激자는 水(물 수)자와 𨋖(노래할 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𨋖자는 뿔뿔이(女)를 들고 사방(方)으로 휘두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激자는 이렇게 사방으로 뿔뿔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그린 𨋖자에 水자를 결합해 거친 물결이 여기저기에서 몰아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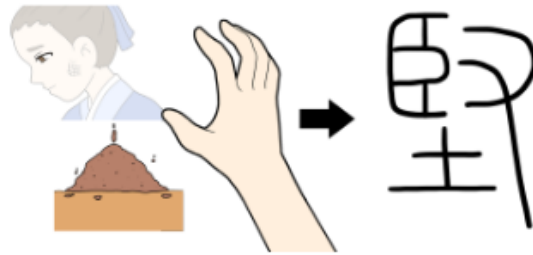
소전

激

해서

4
-
19

회의문자①



堅

굳을 견

堅자는 '굳다'나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堅자는 土(흙 토)자와 堅(굳을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堅자는 신하가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어질다'나 '굳다'라는 뜻이 있다. 堅자는 이렇게 '굳다'라는 뜻을 가진 堅자에 土자를 더한 것으로 '땅을 굳게 하다' 즉, '땅을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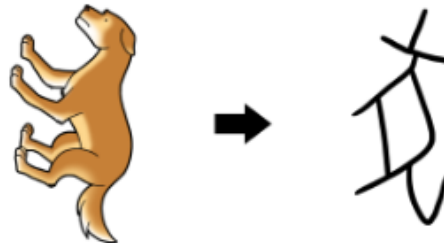
소전

堅

해서

4
-
20

상형문자①



犬

개 견

犬자는 '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 이전의 문자라고도 하는 도문(陶文)에도 犬(개견)자가 발견될 정도로 개는 인류와 매우 친숙한 동물이었다. 그래서인지 갑골문에서는 마치 재롱을 피우듯이 꼬리를 추어올린 개가 그려져 있었다. 犬자는 이렇게 꼬리가 강조된 개를 그린 것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개'나 '개의 행동', '짐승'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犬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犴자로 바뀌기도 하며 狐(여우 호)자나 狼(이리 랑)자처럼 개와 비슷한 부류의 동물을 뜻하기도 한다.

犬

갑골문

犬

금문

犬

소전

犬

해서